



[금융]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울릉도부터 뉴욕까지  
소통행보  
04



Life

[산업]  
한국조선해양  
기술력 중심 '조선업'  
재도약 선언  
05



# 동심·물·숲... 녹음 우거진 도심 속 푸른정원

북악산 동남쪽 산기슭 밑에는 오래된 수령의 소나무가 울창한 삼청공원이 있다. "삼청"이라는 지명은 물이 맑고 숲이 맑아 사람의 마음마저 맑아지는 곳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 삼청공원은 1934년부터 삼림공원으로 관리돼왔다.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계획공원 1호로 지정, 1940년 3월 12일 개원했다. 당시 공원 면적은 43만2000㎡였다. 삼청공원은 반세기 만인 1990년 3월 서울시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 되살아나는 서울

### 49 종로 '삼청공원'

####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원

선선한 봄바람이 부는 지난달 20일 오후 삼청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북촌 한옥마을 방향으로 약 20분을 걸었다. 녹음이 우거진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삼청공원 표지석 왼쪽으로 난 산책로를 따라 올라갔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려왔다. 나뭇잎에 반사된 햇빛은 별처럼 반짝거렸다. 공원에는 소나무 외에도 산벚나무, 팔배나무, 진달래, 철쭉 등이 심어져 있었다.

이날 공원에서 만난 이영숙(55)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 나들이 나왔다"면서 "그냥 작은 공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크다. 동네 마실 나온 게 아니라 등산하러 온 기분"이라며 활짝 웃었다.

공원 한켠에는 '백로가'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백로가는 고려 시대의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가 아들이 간신과 역신의 무리와 어울리지 않도록 훈계하기 위해 지은 풍유시다.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 성난 까마귀가 흰빛을 땀날까 염려스럽구나 /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는 시 구절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취업준비생 정모(28) 씨는 "정독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머리식힐 겸 해서 나왔

#### 3가지 테마로 꾸민 유아숲 체험장 어린이 정서발달 돕는 자연 놀이터

#### '도시공원 일몰제'에 사라질 위기 서울시, 공원 매입해 보존할 계획

다"며 "도서관이 집이랑 꽤 먼데 공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주 오게 된다"고 말했다.

정독도서관 외에도 삼청공원에는 뉴욕 타임스에 소개된 아름다운 도서관이 하나 있다. 종로구의 13번째 작은도서관인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이다. 종로구는 공원 내 낡고 오래된 매점을 리모델링해 2013년 10월 북카페형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구는 "주민 자립형 도서관으로 마을공동체가 운영 중이며,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생태 프로그램, 마을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의 허파

공원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곳은 유아숲 체험장이었다. 유아숲 체험장은 숲 속에서 놀이와 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을 돕는 자연형 놀이터다. 구는 지난 2014년 6억9200만원을 투입해 삼청공원 내에 1만2000㎡ 규모의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했다. 체험장은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동심의 숲',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자연과 하나 되는 '물의 숲', 울창한 나무 아래에서 자연을 배우는 '숲속의 숲' 3가지 테마로 꾸



지난 20일 삼청공원에 온 어린이들이 유아숲 체험장에서 뛰어놀고 있다.



삼청공원 유아숲 체험장 '팔배나무 소꿉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놀다 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며졌다.

서울 중구에 사는 임모(36) 씨는 "맨날 키즈카페만 가니까 애가 답답해 하는 것 같아서 밖에서 뛰어놀 만한 데를 찾다가 삼청공원에 오게 됐다"면서 "여기가 유아숲 체험장을 잘 만들어줬다고 들었는데 소문대로 정말 괜찮다"며 눈을 반짝였다.

유아숲 체험장은 높은 곳에서 나뭇잎과 꽃을 관찰할 수 있는 '하늘 놀이대', 나뭇가지를 이용해 공작 놀이를 할 수 있는 '나무 공작소' 등의 놀이공간으로 구성됐다.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무덤, 가지런히

놓여 있는 나뭇가지 등 체험장 곳곳에서 아이들이 놀다 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직장인 최상철(33) 씨는 "회사가 근처에 있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자주 들른다"며 "머리가 복잡할 때 공원을 걷는 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고 말했다.

도심 속 휴식처로 각광받는 삼청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정해놓고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7월이면 삼청공원은 도시 공원에서 해제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보존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